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1년 3월

온라인 휴머니즘

참가안내

[철학] 마음을 찍는 사진관

★ 일상문화를 통해 접근하는 청소년 철학 입문

※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1년 3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중등부 철학 20만원(10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 강좌 기간 총 1회 휴강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온라인 휴머니즘”을 개설합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1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이 바뀌었지만, 그중 교육은 가장 크게 변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초창기의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많은 이에게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온라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애당초 철저한 논의나 준비 없이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혼란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나다 역시 일상 강좌와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성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지만, 단순히 대면 강좌를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직접 손잡고 이야기 나누며 관계를 맺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서로가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지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정국이 마무리 돼도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대면 강좌를 억지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교육공동체 나다의 청소년 인문학 강좌 ‘휴머니즘’은 이런 고민과 그 결과를 담아, 그리고 평소에 나다의 인문학 강좌를 참가하고 싶었지만 거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가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만으로 진행되는 강좌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준비된 온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과 대면 사이에서 새로운 교육의 방식을 고민하며 준비한, 코로나 19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기획입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맞대진 못하더라도 공감과 상상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개설 강좌

[중등부 철학] 마음을 찍는 사진관 (10강)

★ 일상문화를 통해 접근하는 청소년 철학 입문

△ 참가자 14~16세 △ 일시 3월 21~5월 30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철학 중등

마음을 찍는 사진관 (10강)

★ 일상문화를 통해 접근하는 청소년 철학 입문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3월 21일~5월 30일 오전 10시
참고사항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강좌 전 시간을 정해 접속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철학 강좌는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거나 철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종류의 수업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청소년에게 적절하거나 흥미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철학이 머리가 아픈 학문이라는 믿음(?)은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만약 일상적인 곳에서 철학을 끌어 내올 수 있다면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충분히 철학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세상의 비밀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다에서 마련한 중등부 강좌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익숙한 문화를 통해 철학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철학자가 되어보지는 않으실래요?

.....

1강_ 마음을 찍는 사진관 : 나는 어떤 존재일까

흐르는 시간에서 찰나를 잡아내려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은 그 순간을 정지시키는 시도를 통해 영원한 존재를 꿈꾸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림 한 장에 담긴 세계, 사진 한 장에 담긴 철학을 눈으로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2강_ 그림자 놀이 :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법

인간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자연은 대상의 모습을 땅 위에, 바위 위에, ‘그림자’ 기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의 감

각은 ‘뇌’라 이름 붙은 종이에 ‘인상’이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그 그림들을 흉내 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알쏭달쏭하다고요? 이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강_ 인생은 논리적 오류야 : 논리적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진리는 없다’라는 명제가 진리일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면 논리로 설득한다는 것도 일종의 패러독스(paradox)일지도 몰라요.

4강_ 데스노트가 주어진다면 : 선과 악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데스노트』라는 만화 혹은 영화를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혹시 데스노트에 적고 싶은 이름이 있나요? 데스노트에 적으려 한 그 이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악인일까요? 아니면 데스노트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당신이 악인인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거죠?

5강_ 사랑하고 싶어 :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

여러분이 꿈꾸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때에 따라 결혼을 하고, 둘만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요. 그렇게들 살고 있는 평범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실례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도, 사랑도, 결혼도, 둘만의 아이도, 행복도, 모두 한 남자나 한 여자의 선택이 아니야.”

6강_ 소꿉장난의 추억 : 부조리의 정체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은 귀여워라,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어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한낱 소꿉장난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선생 역할, 학생 역할, 사장 역할, 직원 역할, 역할 놀이를 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세계는 한없이 부조리해 보이는 걸까요?

7강_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적절한 경쟁은 꼭 필요할까?

한국사회의 경쟁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무한경쟁에 시달리며 그것이 때로는 수많은 비극적인 상황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전적으로 나쁜 것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무한’경쟁이 문제일 뿐 적절한 경쟁은 작게는 게임에서의 재미를 위해, 크게는 이 세상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도,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간에게는 경쟁이란 숙명과도 같은 것일까요?

8강_ 멋진 신세계 :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법

과학 기술은 단지 허구에 불과했던 상상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 속의 로봇과 책 속의 요정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와 하늘을 날아다니고 만화 속의 스파이더맨이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이제 우리는 곧 눈앞의 현실보다 가상현실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만드는 가상현실은 우리의 사고마저 매트릭스에 가두어버리지는 않을까요?

9강_ 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정의롭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에 관한 갈망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몇 마디 대사도 쉽게 정의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말하고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의견이 갈리고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 질문에 한 번 대답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10강_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 삶을 지배하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흔히 삶을 이런저런 놀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투판 혹은 포커판에 때로는 장기판 혹은 체스판에 그리고 때로는 윷놀이 혹은 주사위 놀이에... 이런 비유들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운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실제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면... 재미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답에 무엇이냐에 따라 내 삶의 계획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육공동체 나다 2021년 3월 온라인 휴머니즘 소개 마침■